

2024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2025. 2. 28.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4 일반대학원 자체평가결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제출자	평가위원장	지 명 원
	평 가 위 원	한 효 상
	평 가 위 원	김 혜 전

❖ 목 차 ❖

■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요약	1
1. 목표 및 계획	2
2. 학사운영 및 관리	10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16
4. 학위수여체제	22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32
6. 연구 및 대외협력	44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요약

2024학년도 일반대학원 자체평가는 6개 영역,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①목표·계획, ②학사운영·관리, ③교육과정·교수학습, ④학위수여체제, ⑤교육여건·지원체제 등은 이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높은 수준(A/B)을 유지하였으나, ‘현장실습운영’과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은 계속해서 C등급에 머물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연구·대외협력 영역에서는 대학원생 연구실적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어 일부 성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B)과 연구비 수혜실적(D)은 2022학년도 자체평가와 환산 방식과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일반대학원 강의를 교원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1인당 연구실적 등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향후 강의·지도 교원을 별도 관리할 경우 실제 역량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지도 참여 교원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지표 산출·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미 우수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되,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장·단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대학원 역량을 균형 있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2024	2022
1. 목표 및 계획	교육목표	A	A
	발전방향	B	B
2. 학사운영 및 관리	입학전형 공정성	A	A
	신입생 충원율	A	A
	중도탈락학생 현황	B	B
	재학생 충원 현황	A	A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A	A
	교원 강의담당 현황	B	B
	강의평가	A	A
	현장실습운영	C	C
4. 학위수여체제	논문자격시험	A	A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A	A
	논문심사절차 및 논문심사위원구성	A	A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B	B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	C	C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B	B
	대학원생 자치조직구성 현황 및 지원	A	A
	강의실 확보 및 배정	B	B
6. 연구 및 대외협력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B	A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D	B
	대학원생 연구실적	C	D
	외국인 학생 비율	A	A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1. 목표 및 계획

1.1 자체평가 결과

1.2 교육목표

1.3 발전방향

1.4 제언



1 목표 및 계획

1.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교육목표	A
발전방향	B

1.2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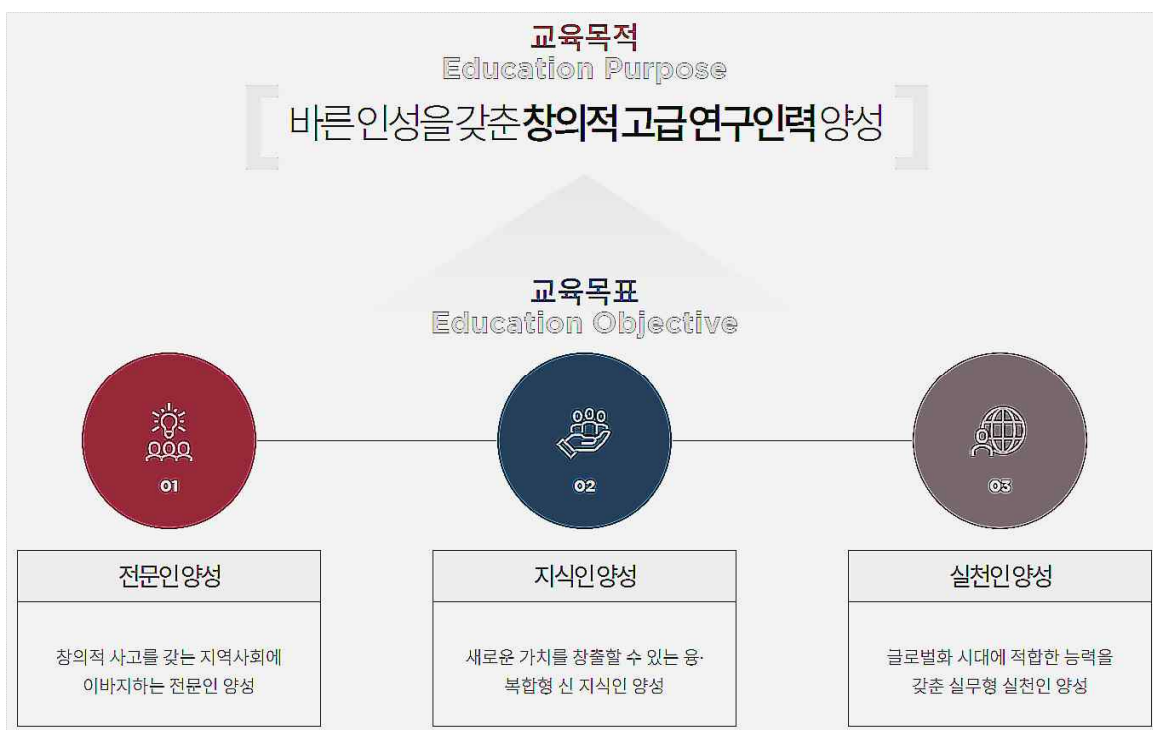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적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고급 연구인력 양성

2) 교육목표

- 창의적 사고를 갖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전문인 양성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형 신지식인 양성
- 글로벌화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실무형 실전문인 양성



1.3 발전방향

중부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은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선도한다.

1) 발전 및 특성화 계획 수립 배경



① 강점(Strengths)

- 교육목표(A), 학사운영(A), 강의평가(A), 학위수여체제(A), 외국인 학생 비율(A)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 유지
-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96.5%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학사운영 체계 유지
- 대학원생 자치조직으로 원우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장학금 및 기금 마련 등의 활동 진행
- 외국인 학생 수가 증가하며,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비율 상승

② 약점(Weaknesses)

-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평균 150만 원(C등급) 수준으로, 우수한 수준(B등급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 현장실습이 일부 학과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전반적인 확대 필요
-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낮고, 전년 대비 감소(D등급)
- 박사논문 수가 감소하고, 석사과정은 학점 이수만으로 졸업 가능해 연구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③ 기회(Opportunities)

-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가능
- 연구비 지원 확대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수혜 개선 가능
-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원의 경쟁력 향상

④ 위협(Threats)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원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충원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글로벌 대학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SCI급 논문 및 국제 연구 협력 확대 필요
- 연구비 지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내외 연구비 수주 전략이 필요

2) 비전 및 발전 목표

① 비전 - 창의를 융합을 기반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원

② 발전 목표

- 강의와 연구를 기반한 교육 혁신의 극대화
- 역량 있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산·학·연·관 연계교육 벨트 구축
-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사운영과 지원체제 구축
-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행정서비스 강화



3) 발전 영역별 추진 전략

- ① 교육영역 목표 - 교육혁신을 통한 강의 및 연구 성과 극대화
 - 대학원 우수 교원 확보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현
 - 산·학·연 연계 교육 특성화 구축 및 실천
 - 학문간 융·복합을 위한 교육 토대 마련
 - 글로벌 교육 지원체제 및 기반 구축
- ② 교수영역 목표 -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 및 연구역량 극대화
 -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교수진 확보
 - 산·학·연 협력 연구 및 창조적 융·복합 연구 활성화 구축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 우수 연구 교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
- ③ 학사제도영역 목표 - 학습자 중심의 합리적 학사운영 및 제도 개선
 - 융·복합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학사제도 운영
 - 학사관리의 엄정성 및 공정성 확보
 - 학사 서비스의 원스톱 체제 구축
 -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편성
- ④ 학생지원영역 목표 - 학생 후생복지가 강화된 지원체제 구축
 - 커뮤니티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한 다양성 제공
 - 진로상담 체제 구축 및 양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강화
 - 동문 교류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다양한 장학제도 도입 및 정착
- ⑤ 조직 및 인프라영역 목표 - 글로벌 정보 인프라구축 및 행정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의 첨단화 및 교육환경 구축
 - 선진화된 교육과 연구 지원체제 기반구축 및 시설 확충

4) 특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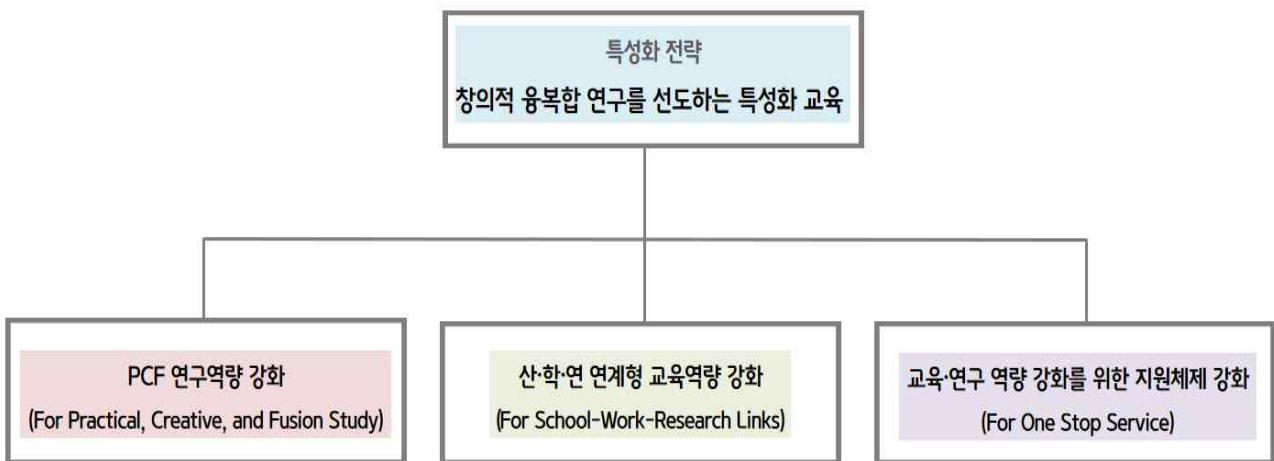
- ① PCF 연구역량 강화 (For Practical, Creative, and Fusion Study)
 - 현장 및 실무 능력이 뛰어난 우수 전임교원의 확보
 - 산·학·연 연구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환경 및 지원체제 개선
 - 우수 교원의 연구활동 적극 지원

② 산·학·연 연계형 교육역량 강화 (For School-Work-Research Links)

-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지원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및 산·학 협력 중심 교육 강화
- 산·학·연 협동과정 활성화를 통한 실용교육 확대

③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For One Stop Service)

- 교육, 연구, 행정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
- 학습자 전용 공간(연구실, 연구시설 등)의 확충
- 교내 전산망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용 문헌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강화



1.4 제언

- 일반대학원의 발전 영역별 추진 전략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일반대학원의 교육목적과 디지털 융합 시대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설정되었으나, AI/빅데이터 기반의 발전 목표별 실천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반대학원의 발전 목표에 따른 영역별 교수 및 학생 지원체제와 교류협력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특히 메타버스,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 방식 도입이 요구됨.
-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CI급 논문 출판 인센티브 및 연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글로벌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및 산업체와의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 연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AI 기반 학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참여형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대학원생의 연구 실적 향상을 위해 연구 공간 및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학령인구 감소 및 연구비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2. 학사운영 및 관리

- 2.1 자체평가 결과
- 2.2 입학전형 공정성
- 2.3 신입생 충원율
- 2.4 중도탈락학생 현황
- 2.5 재학생 충원 현황
- 2.6 학사운영 및 관리 영역의 제언



2 학사운영 및 관리

2.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입학전형 공정성	A
신입생 충원율	A
중도탈락학생 현황	B
재학생 충원 현황	A

2.2 입학전형 공정성

- 교육부의 입학생 선발 정책 및 대학원의 규정에 입각한 공정한 입학생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학원 학칙 제2장 제5조부터 제10조에 입학시기, 입학자격, 입학지원 절차, 입학전형, 입학허가, 입학의 취소 등을 규정해 대상자에게 입학과 수학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음.
-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학과의 필요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전공 및 학위과정에 따른 세부적 절차와 방법을 홈페이지 및 대학원 모집요강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에게 동등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입학에 대한 규정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교육대학원의 입학자격은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직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발급이 안 되는 전공은 예외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지원 절차) 각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8.13.)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입학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06.21.)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2.3 신입생 충원율

- 2024년도 전국 일반대학원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86.8%이며, 전체 188개 대학원 중 26개교(13.8%)가 100% 충원율을 달성한 반면, 23개교(12.2%)는 60% 미만의 저조한 충원율을 기록함.
- 전국 일반대학원의 정원 내·외 충원율을 비교하면, 정원 내 충원율은 2023년 85.4%에서 2024년 86.8%로 소폭 상승했으며, 정원 외 충원율은 2023년 110.8%에서 2024년 115.2%로 증가함. 이에 따라 전체 신입생 중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이 28.4%에 달함.
- 특히, 26개 대학원에서는 정원 외 입학자가 정원 내 입학자보다 많으며, 일부 대학원의 경우 정원 외 입학자가 정원 내 입학자의 13배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도 나타남.
-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은 <표 2-1>과 같이, 2023년 88.4%, 2024년 96.5%의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하며 전국 188개 대학원 중 37위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생 미달 사태에 대비하여, 정원 외 입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인 학생 중심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1> 신입생 충원율 현황

(단위:명)

연도	학위 과정	입학 정원 (A)	지원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B/A)x100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 내(B)		정원 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3	석사	33	19	14	111	56	200	15	9	59	31	114	72.7
	박사	53	33	49	99	84	265	23	29	72	63	187	98.1
합계		86	52	63	210	140	465	38	38	131	94	301	88.4
2024	석사	33	22	26	275	115	438	13	16	123	68	220	87.9
	박사	53	47	41	213	162	463	28	26	150	104	308	101.9
합계		86	69	67	488	277	901	41	42	273	172	528	96.5

2.4 중도탈락학생 현황

- 전국 대학원 과정별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 석사과정은 2023년 6.0%에서 2024년 7.0%로 1%p 증가했으며, 박사과정은 2023년 5.2%에서 2024년 8.5%로 3.3%p 상승하여, 특히 박사과정의 중도탈락률 증가가 두드러짐.
-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은 <표 2-2>와 같이, 2022년(2023학년도 공시) 5.49%에서 2023년(2024학년도 공시) 7.99%로 2.5%p 증가하여 전국 평균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임. 특히 박사과정에서 자퇴 및 미등록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우리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은 안정적인 반면, 재학생 중도탈락률 증가가 문제로 확인됨. 특히 박사과정에서 중도탈락 사례가 두드러지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업 및 연구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해야 함.
- 이에 따라 재학생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도교수-학생 간 정기적인 면담 시스템 도입
 - 학업 진행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체계 구축
 - 학업 중단 위험 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 지원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심리 상담 및 진로 지도 서비스 확충

<표 2-2> 사유별 중도탈락학생 현황

(단위:명)

공시 (기준) 연도	재적 학생 (A)	석사				박사				총계 (E)	중도탈락 학생비율(%) (E/A)×100
		소계 (B)	미등록	미복학	자퇴	소계 (B)	미등록	미복학	자퇴		
2023 (2022)	474	10	1	4	5	16	5	5	6	26	5.49
2024 (2023)	576	16	2	7	7	30	2	9	19	46	7.99

2.5 재학생 충원 현황

-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표 2-3>과 같이, 2023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3.2%였으나 정원 외 재학생을 포함하면 351.6%로 크게 증가함.
- 2024년에는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9.0%로 상승하고, 정원 외 재학생을 포함할 경우 455.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88개 일반대학원 중 우리 대학원은 재학생 충원율 5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충원율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 재학생 충원 현황

(단위:명)

연도	학생 정원 (A)	학생모집 정지 인원 (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 {C/(A-B)}×100	정원 내 충원율 (%) {D/(A-B)}×100
			계(C)	정원 내 (D)		정원 외			
				석사	박사	석사	박사		
2023	155	0	545	46	83	147	269	351.6	83.2
2024	172	0	783	49	104	267	363	455.2	89.0

2.6 제언

-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시대의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내국인 신입생 확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해야 함.
- 각 학과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과별 경쟁력을 높여야 함. 최근 2년간 92.5%의 신입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해 AI 기반 학생관리 시스템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진로 상담, 연구 지원, 장학금 확대 등 통합적 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최근 2년간 86.1%의 정원 내 충원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교육환경 구축, 산학협력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등 체계적인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3.1 자체평가 결과
- 3.2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 3.3 교원 강의담당 현황
- 3.4 강의평가
- 3.5 현장실습운영
- 3.6 제언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3.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A
교원 강의담당 현황	B
강의평가	A
현장실습운영	C

3.2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학과개설

- 2024학년도 현재 일반대학원 단일 석사과정 학과는 관광경영학과, 동물보건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영유아교육경영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 7개임.
- 단일 박사과정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글로벌공공정책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미래자동차융합공학과,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스마트전력IT융합학과, 정원학과, 체육학과, 공연예술학과(외국인 대상) 등 10개임.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과는 경영학과, 교육학과, 국제통상학과, 자연치유학과, 토목공학과, 특수교육학과, 한약자원학과 등 7개임
- 또한, 계약학과로는 교육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자연치유심리학과 등 3개 학과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학사 내규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각 학과 및 전공계열의 교수회의를 통해 전공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수와 강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공 심화연구가 가능하도록 요구 수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적용되는 교과내용의 관련 정보는 대학원 요람이나 인터넷 정보공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3.3 교원 강의담당 현황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개설강좌의 교원 강의담당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교원 강의담당 현황

연도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초빙교원		시간강사		강사		기타		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강의 담당 학점	비율 (%)
2023	1,147	803.5	70.1	178.5	15.5	0	0	96	8.4	69	6.0	312	36.8
2024	1,155	807	69.9	177	10.1	0	0	99	8.6	72	6.2	348	30.1

-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 각 70.1%, 69.9%로 평균 70.0%로 나타남. 이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치인 63.2%와 67.0%보다 증가한 수치임. 지난 주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것에 반해 반등한 결과로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2023년과 2024년 타지역 평균을 살펴보면, 경기 71.5%, 대전 78.7% 충남 79.1%로 중부대학교는 경기, 대전, 충남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3.4 강의평가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강의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강의평가 현황 (석·박사 평균값)

연도	강의평가 점수(100점 만점)	강의평가 점수(5점 만점)
2023	97.8	4.8
2024	97.8	4.8

- 일반대학원 강의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97.8(4.8)점으로 나타남. 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97.1점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원생들이 강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3.5 현장실습운영

대학원 학칙 제15조의3(수업방법)에서 ‘현장실습 수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학과에서 제한된 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적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3.6 제언

-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 간 융합 요구가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혁신적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학문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규 전공을 개설하고, 기존 전공 간 융합을 강화해야 함. 또한, 융합전공 트랙 신설 및 공동 강의 개설 등 학제 간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은 현재 석사과정 7개, 박사과정 10개, 석·박사과정 병행 학과(계약학과 제외) 7개 등 총 31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학사 내규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2020년 27개, 2022년 30개에서 증가한 수치로 학문적 변화와 정책 조정을 반영한 결과임. 향후 학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 적합성과 학문적 연계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 수렴 체계를 보다 정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또한, 유사 규모 대학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 시 경기(71.5%), 대전(78.7%), 충남(79.1%) 등 타지역 평균 수준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수 강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 환경 개선, 전임교원 강의 비중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비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특정 전공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강의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 평가 기준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재학생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수업, 연구,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장실습 수업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학과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팀티칭 수업과 정기 학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4. 학위수여체제

- 4.1 자체평가 결과
- 4.2 논문자격시험
- 4.3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 4.4 논문심사절차 및 논문심사위원구성
- 4.5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 4.6 제언



4 학위수여체제

4.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논문자격시험(절차, 합격률, 합격기준)	A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A
논문심사절차 및 논문심사위원구성	A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B

4.2 논문자격시험

1)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한 학업수준 검증

- 대학원 학칙 제31조에 따라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시행해 학위취득을 위한 학업수준 검증 과정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기존 외국어시험에서 적용하던 TOEFL 기준 점수를 IBT(120점 만점) TOEFL 합격기준으로 재 설정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외국어시험에 대한 세칙 규정

제3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부여된다.
 ②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 4주 전에 공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04.22.)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전공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외국어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의 수준은 해당 전공분야 외국문헌의 독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한다.
 ⑤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⑥ 최근 3년 이내의 TOEFL 성적이 계열에 일정 성적 이상인 자(인문사회계열 550점, 자연과학 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530점 이상 또는 TOEIC이나 TEPS 성적이 이에 상응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성적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 특수대학원생은 외국어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외국인은 본 대학원 규정에 따르되 자국어는 외국어로 선택할 수 없다.

- 종합시험에 대한 세칙 규정

- 제37조(종합시험)** ① 각 대학원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현재학기까지 통산 18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자에 부여한다.(개정 2022.04.22.)
- ②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 4주 전에 공지하여 실시한다.(2022.04.22.)
- ③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하고 평가수준은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한다.
- ④ 종합시험 합격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시 해당 과목만 재 응시할 수 있다.

2) 학위수여자격 요건

-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도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논문대체 학점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표 4-1> 학위수여자격 요건

과정	졸업 선택	최소 이수 학기	최소 취득학점 (이수학점)	최소 총 취득 평점 (4.5점 만점 기준)	학위 논문	논문제출 및 졸업기한 (졸업연한)	종합 시험
석사 과정	학점	4학기	30학점	총평균 3.0 이상	-	입학일 기준 7년 이내	합격 필수
	논문	4학기	24학점	총평균 3.0 이상	제출 및 합격 필수	입학일 기준 7년 이내	합격 필수
박사 과정	논문	4학기	36학점	총평균 3.0 이상	제출 및 합격 필수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합격 필수

4.3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1) 심층적인 논문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배정

- 최근 2년간 논문지도 교수와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표 4-2>와 같이, 석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평균 1.08명의 논문지도 학생을, 박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평균 1.89명의 논문지도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교수별 논문지도 학생 수가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전반적으로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학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논문지도 과정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도교수 배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거나 논문지도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표 4-2> 최근 2년간 논문지도 교수별 학생 수

(단위:명)

학기별 졸업인원	논문지도 교수 수(A)		논문지도 학생 수(B)		논문지도 교수별 학생 수(B/A)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2023년 1학기	1	14	1	26	1	1.86
2023년 2학기	3	27	4	50	1.33	1.85
2024년 1학기	2	16	2	32	1	2.00
2024년 2학기	6	32	6	60	1	1.88
평균	3.00	22.25	3.25	42.00	1.08	1.90

4.4 논문심사절차 및 논문심사위원구성

1) 논문심사절차와 심사위원구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요건과 논문제출 연한, 논문심사위원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32조(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논문 제출기한은 각 학위과정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대학원 세칙 제38조 ~ 제43조에 학과장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학과장의 직무, 지도교수 위촉 절차 및 자격, 지도교수 변경 절차 등)을 공지하여 학위취득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1절 학과장과 지도교수

제38조(학과장) ① 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개정 2016.2.1.)

② 학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 관장
2.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기타 해당학과의 중요 학사업무 관장

제39조(졸업시험) 삭제(2009.05.12.)

제40조(지도교수의 위촉) ①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2학기 초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2.1.)

②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급 이상의 교외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2.1.)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선정절차,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수 제한 등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전공)학과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2.1.)

제41조(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 후 교원 인사규정 제10조(임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동안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6.13.)

제42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업무를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제43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신·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2.1.)

② 논문심사 개시 후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학과장이 지정한 동일전공의 교수나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원래 지정된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6.2.1.)

- 대학원 세칙 제44조 ~ 제54조에 논문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절차 및 자격, 논문심사위원 및 위원장의 구성 및 자격, 논문심사 절차 및 판정기준, 면제 기준 등)을 공지하여 학위취득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4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말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②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연구 지도를 받은 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학칙 제21조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B학점) 이상인 자(개정 2013.8.13.)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46조(학위청구논문 체제와 양식)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체제와 양식은 별도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47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성

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2.1. 2017.12.18.)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2.1.)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2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한다.(개정 2017.12.18.)

제48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6.2.1.)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9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논문심사) ① 석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3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3회의 본 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고, 2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하여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한다. 본심사 시에는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과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인용문헌, 도형, 표본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10.6.)

제51조(논문심사의 판정) ① 논문심사는 본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논문심사는 논문내용 및 구술시험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3명중 2인 이상으로부터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며,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5명중 4인 이상으로부터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52조(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완성논문 제출) 완성된 논문은 하드커버 7부와 논문CD 2매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6. 2017.12.18.)

제54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학점 이수(6학점)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18.)

4.5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1)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023년도에는 80명의 대학원생이 평균 2년 2개월에 걸쳐 학위를 취득하였고, 2024년도에는 55명의 대학원생이 평균 2년 1개월에 걸쳐 학위를 취득함.
-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023년도에는 78명의 대학원생이 평균 2년 4개월에 걸쳐 학위를 취득하였고, 2024년도에는 74명의 대학원생이 평균 2년 6개월에 걸쳐 학위를 취득함.
-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021년(38명) 및 2022년(52명)과 비교하면 학위취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위취득 소요기간도 2021년 3년 3개월, 2022년 2년 9개월에서 점차 단축되는 추세를 보임.
- 박사학위과정의 경우도 2021년(14명) 및 2022년(69명)과 비교하면 학위취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학위취득 소요기간도 2021년 4년 2개월, 2022년 2년 8개월에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박사학위는 2년 내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수료 후 평균 4개월 정도 논문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3> 학위취득 소요기간 현황

졸업 연도	석사학위 취득자 수(명)				박사학위 취득자 수(명)			
	남	여	계	평균 졸업 소요기간	남	여	계	평균 졸업 소요기간
2023년 졸업	28	52	80	2년 2개월	18	60	78	2년 4개월
2024년 졸업	25	30	55	2년 1개월	23	51	74	2년 6개월

2)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 <표 4-4>와 같이,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은 2023년 평균 52.5%, 2024년 평균 24.4%로 나타남.
-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25.7%, 2022년 45.8%로 증가한 후 2023년 52.5%까지 상승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2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2023년 70.2%, 2024년 25.0%를 기록하였으며, 박사과정의 경우 2023년 41.7%, 2024년 24.0%를 보임.
- 2024년의 경우, 입학자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졸업자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졸업 및 학위취득을 위한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논문지도 강화가 필요하며, 학위취득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4-4> 학위취득 비율

연도	학위과정	입학생(명)	졸업생(명)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2023	석사	114	80	70.2
	박사	187	78	41.7
합계		301	158	52.5
2024	석사	220	55	25.0
	박사	308	74	24.0
합계		528	129	24.4

4.6 제언

-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은 학위수여와 관련된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석·박사과정 모두 학위취득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논문제출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절차는 명확한 규정과 세칙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한 학업수준 검증체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
- 석·박사과정의 입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은 한때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학위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입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위취득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추세이나,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 간 논문지도 및 심사 절차에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률 향상을 위해 연구 지원과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 5.1 자체평가 결과
- 5.2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
- 5.3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 5.4 대학원생 자치조직구성 현황 및 지원
- 5.5 강의실 확보 및 배정
- 5.6 제언



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5.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	C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B
대학원생 자치조직구성 현황 및 지원	A
강의실 확보 및 배정	B

5.2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5-1>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원)

연도	학위과정	학기	재학생(A)	교내 장학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C=B/A)
				입학금	수업료	합계(B)	
2023	박사	1학기	336명	23,100,000	223,402,000	246,502,000	733,000
		2학기	366명	8,800,000	230,821,000	239,621,000	654,000
	석사	1학기	190명	-	157,490,000	157,490,000	828,000
		2학기	251명	-	211,728,000	211,728,000	843,000
2024	박사	1학기	444명	29,825,000	293,311,000	323,136,000	727,000
		2학기	571명	8,550,000	363,584,000	372,134,000	651,000
	석사	1학기	303명	550,000	257,943,000	258,493,000	853,000
		2학기	495명	550,000	417,579,000	418,129,000	844,000

□ 2023학년도 장학금 수혜 현황

- 2023학년도에는 박사과정(1·2학기 합산)에서 총 4억 8천 6백여만 원(486,123,000원), 석사과정(1·2학기 합산)에서 총 3억 6천 9백여만 원(369,218,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전체적으로 약 8억 5천 5백만 원(855,341,000원)의 장학금이 집행되었음.
- 이를 1학기·2학기의 재학생 수 평균(572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 1인당 장학금은 약 149만 6천 원(1,496,000원)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학기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사과정은 1학기(336명)에서 1인당 약 73만 원, 2

학기(366명)에서 약 65만 원 수준이며, 석사과정은 1학기(190명)에서 약 82만 원, 2학기(251명)에서 약 84만 원 내외로 조사되었음.

- 학기별 단순 평균(1인당 장학금)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연간 합산 후 ‘연평균 재학생 수’를 적용하면 약 150만 원 선으로 상승하게 됨.

□ 2024학년도 장학금 수혜 현황

- 2024학년도에는 박사과정(1·2학기 합산)에서 총 6억 9천 5백여만 원(695,270,000원), 석사과정(1·2학기 합산)에서 총 6억 7천 6백여만 원(676,622,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전체적으로 약 13억 7천 1백 90만 원(1,371,892,000원)의 장학금이 집행되었음.
- 이를 1학기·2학기의 재학생 수 평균(907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 1인당 장학금은 약 151만 3천 원(1,513,000원)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학기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사과정은 1학기(444명)에서 1인당 약 73만 원, 2학기(571명)에서 약 65만 원 수준이며, 석사과정은 1학기(303명)에서 약 85만 원, 2학기(495명)에서 약 84만 원 선으로 확인되었음.
- 마찬가지로 연간 합산 시에는 1인당 장학금이 약 150만 원대로 산출되어, 2023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text{연간 1인당 장학금} = \frac{(\text{1학기 장학금 총액} + \text{2학기 장학금 총액})}{(\text{1학기 재학생 수} + \text{2학기 재학생 수}) \div 2}$$

- 평가기준 : <표 5-2> 참조

<표 5-2> 장학금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3,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0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000,000원 미만

- 평가결과 : C등급(보통)

- 1인당 장학금은 2023년 1,496,000원, 2024년 1,513,000원으로 나타나 평균 1,504,500원으로 확인됨.

□ 결론

- 최근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수혜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427,000원과 2,372,000원의 1인당 장학금이 지급되어 평균 2,399,000원으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784,000원과 1,230,000원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평균 등록금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 환경 변화

의 영향으로 보이며, 최근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497,000원과 1,513,000원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1인당 장학금이 약 150만 원 선(C등급)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수준을 우수(B등급, 2,000,000원 이상)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내외 장학재원을 더욱 확충하고, 연구조교(RA)·교육조교(TA)·근로장학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교내 장학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5.3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학원생을 위한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5-3>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수용인원(면적)	이용시간	전용(공용) 여부
도서관	정금관, 세종관	11,931㎡	24시간	공용
기숙사	경영관, 수정재	1,698명	24시간	공용
식당	경영관, 세종관	776명	7:30~19:30	공용
편의점	건원관, 경영관, 세종관	184.8㎡	8:00~20:00	공용
카페	건원관, 세종관	195.6㎡	8:30~20:00	공용
푸드코트	인농관	306.9㎡	8:00~20:00	공용
체력단련실	범농관, 경영관, 세종관	342.3㎡	6:00~22:00	공용
은행	청강관		9:00~16:00	공용
우체국	청강관		9:00~18:00	공용

□ 주요 복지시설 및 운영 현황

- 도서관
 - 대학원생이 학술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스터디룸을 예약해 사용할 수 있음.
- 기숙사
 - 학기 중에는 학부생 중심으로, 방학 중에는 대학원의 집중학기·유연학기 일정에 맞춰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대학원생 전용 구역은 없는 상태.
- 식당·편의점·카페
 - 교내 구성원의 식음료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방학 중 일부 편의시설은 운영을 축소하거나 휴점하여 상주하는 대학원생(특히 외국인)의 편의가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체력단련실
 - 범농관·경영관·세종관 등에 마련되어 있으며, 학업·연구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 은행·우체국
 - 충청국제캠퍼스(청강관)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금융·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고양창의캠퍼스의 세종관·인농관 및 충청국제캠퍼스의 건원관·정금관에는 ATM기가 설치되어 있음.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대학원생 전용시설 존재 여부 및 다양한 복지시설 제공 여부
- 평가기준 : <표 5-4> 참조

<표 5-4>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대학원생 전용 & 다양한 복지시설	학부생과 공용 & 다양한 복지시설	학부생과 공용 & 소수의 복지시설	복지시설 없음

- 평가결과 : B등급(우수)
 - 대학원생 전용시설은 부족하나 도서관·기숙사·체력단련실·식음료시설 등 전반적인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학부생과 공용 & 다양한 복지시설’로 분류됨.
 - 앞으로 대학원생 전용 공간을 확충할 경우 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결론

- 학부생과 시설을 공유하나, 도서관·기숙사·식음료점·체력단련실·은행·우체국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음. 대학원생들도 학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음.
- 다만, 방학 중에는 일부 편의시설이 운영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대학원생 등 상주 인원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학부생이 거의 없어 공간 사용이 넉넉해지는 측면도 있어 사실상 전용시설처럼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대학원생의 학습·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스터디룸, 세미나실, 기숙사 구역 등을 마련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연구·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상주 대학원생(특히 외국인)을 위해, 식당·카페·편의점 등 일부 편의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혹은 최소한의 운영 유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학 중 운영 현황을 미리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탄력 운영을 통해 시설 유지비 절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대학원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운영 효율성도 강화할 수 있음.

5.4 대학원생 자치조직구성 현황 및 지원

□ 자치조직 현황

- 재학생의 권익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학생 자치조직인 원우회(회장, 총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과별로도 학과 대표 등의 자치조직이 따로 편성되어 있음.
- <표 5-5>는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현황으로, 현재 회장 1인과 총무 1인이 중심이 되어 원우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표 5-5>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직책	학과명	학번	성명	연 락 처
회장	스마트전력IT융합학과	7235○○○○	이○○	010-8985-○○○○
총무	국어국문학과	7245○○○○	남○○	010-9871-○○○○

- 원우회에서는 종합시험·외국어시험 시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학위수여식 참석자(원우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대학원 총 원우회에서는 2025년 1월 초 12,000,000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정하였음.
- 또한, 재학생들의 학술교류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원우회 주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공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학원생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있음.

□ 자치조직 지원

- 원우회 임원 특별장학금을 포함하여, 대학원에서는 <표 5-6>과 같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에는 외국인 학생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학원생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표 5-6>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발체)

1. 대학원별 장학금 비율(정액)

대학원	과정	본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기업체 임직원	가족 우대	공공 기관	군인 및 공무원	타교 교직원	본교 출신	원우회 회장	원우회 총무
일반	박사	50%	9%	200,000원	17%	25%	25%	25%	500,000원	300,000원
	석사	50%	9%	200,000원	17%	25%	25%	40%		
휴먼텍	석사	50%	11%	200,000원	15%	25%	25%	25%	500,000원	300,000원
교육	석사	50%	11%	200,000원	15%	25%	35%	25%	500,000원	300,000원

2. 외국인 학생 장학금

구분	기준	장학금 비율
①입학추천장학금 (② 또는 ③과 중복지급 가능)	해외자매대학(기관) 추천	10%
	중부대 총장 추천	
②한국어능력장학금 (③과 중복 적용 불가)	TOPIK 2급 취득	10%
	TOPIK 3급 취득	20%
	TOPIK 4급 취득	30%
	TOPIK 5급 취득	40%
	TOPIK 6급 취득	50%
③영어능력장학금 (②와 중복 적용 불가)	TOEFL 530점(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평가지험 성적 취득	20%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대학원 자치조직 구성 및 학교 차원의 지원 여부(장학금, 활동 지원금 등)
- 평가기준 : <표 5-7> 참조

<표 5-7> 자치조직구성 현황 및 지원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대학원별 자치조직 구성 & 학교 지원	대학원 단일 자치조직 구성 & 학교 지원	대학원별 자치조직 구성 & 학교 지원 없음	대학원 단일 자치조직 구성 & 학교 지원 없음

- 평가결과 : A등급(매우 우수)
 - 각 대학원마다 원우회 등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원우회 임원 특별장학금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 글로벌 매니저를 고용하여 언어·생활·학사 관리 등에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이 원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따라서 ‘대학원별 자치조직 구성 & 학교 지원’에 해당함.

□ 결론

- 대학원생 대표기구(원우회)가 각 대학원별로 운영되어 재학생 권익 향상과 학술·문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학교는 원우회 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원우회는 세미나 개최, 기념품 제공, 발전 기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원우회 및 학과별 대표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원생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학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원우회 내 국제교류위원회 등 하위 조직을 두거나 외국인 학생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연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원우회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워크숍 등을 추진해 대학원생들이 최신 전공 지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차원에서도 원우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모색한다면 대학원생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

5.5 강의실 확보 및 배정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의실 확보 및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8> 강의실 확보 현황

시설명	위치	수용인원	전용(공용) 여부	기자재
소규모 강의실	송백관 104호	30명	전용	컴퓨터, 스크린
소규모 강의실	각 학과	각 30명	공용	전자교탁, 스크린
세미나실	송백관 118호	10명	전용	회의테이블

□ 강의실 운영 현황

- 송백관 104호(소규모 강의실, 30명)와 송백관 118호(세미나실, 10명) 등 총 2개의 강의실을 대학원생 전용으로 확보하고 있음.
- 전용 공간은 주로 대학원 과정의 이론 강의, 세미나, 프로젝트 미팅 등에 활용되며, 충분한 좌석과 회의테이블, 전자교탁, 스크린 등의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음.
- 학과별로 배정된 소규모 강의실(약 30명 규모)은 학부·대학원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표를 조정하여 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학문 간 상호 교류와 협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공용 강의실은 학기별 시간표 편성 시 대학원 강의 시간대와 학부 강의 시간대를 분리·조율하여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각 강의실에는 전자교탁, 스크린 등이 비치되어 있어 PPT·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토론에 적합함.
- 세미나실에는 회의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그룹 학습과 연구 모임 진행이 용이함.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대학원생 전용 강의실 확보 여부

- 평가기준 : <표 5-9> 참조

<표 5-9> 강의실 확보 및 배정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대학원생 전용	대학원생 전용 + 학부생과 공용	학부생과 공용	강의실 부족

- 평가결과 : B등급(우수)
 - 대학원생만을 위한 전용 강의실(2개)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부와 공용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강의실들을 필요 시 배정하고 있음.
 - 전용 강의실이 있으나 대다수 과목 배정 시에는 학부의 시설도 활용해야 하므로, ‘대학원생 전용 + 학부생과 공용’에 해당됨.

□ 결론

- 두 개의 대학원 전용 강의실(소규모 강의실·세미나실)을 통해 대학원생이 독립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학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강의실도 시간표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든 강의실에는 전자교탁과 스크린 등의 교육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어 수업 및 연구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음.
- 대학원에서 유연학기제와 단기과정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대학원생 수 증가나 연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전용시설 확충과 공용 강의실 기자재 업그레이드(스마트보드, 화상 강의 장치 등)를 검토함으로써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 및 협업 환경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5.6 제언

□ 장학금 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연구조교(RA)·교육조교(TA)·근로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대학원생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교내외 재원(정부·공공기관·산업체 협력 등)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교내 장학금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1인당 장학금 수준을 B등급(2,000,000원 이상)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대학원생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 대학원생의 연구·학습 특성을 반영한 전용 스터디룸, 세미나실, 기숙사 구역 등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방학 중 편의시설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상주하는 대학원생(특히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또는 최소화 조치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강화

- 외국인 학생 증가에 맞춰 글로벌 매니저(외국인 전담)를 통해 학사, 생활, 언어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원우회 내 국제교류위원회 등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학생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외국인 대학원생이 보다 원활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원우회(자치조직) 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

- 대학원생 대표기구(원우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기적인 전문가 초청 강연·워크숍 등을 기획하는 한편, 학과별 대표자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원우회 임원 특별장학금 확대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치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국제교류원의 글로벌 매니저와 원우회 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외국인 대학원생이 학업·생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맞춤형 상담, 생활 적응 지원, 연구 및 학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강의실 및 기자재 업그레이드(단기·중기·장기 추진 계획)

- 단기(1년 이내)
 - 기존 전용 강의실(소규모 강의실, 세미나실)에 스마트보드·화상 강의 장치·녹화시스템 등 최신 교육 기자재를 우선 보강
 - 학부·대학원 시간표 조정을 개선하여 유연학기제 및 단기과정 운영 확대 시 추가 수요에 신속히 대응
- 중기(2~3년 이내)
 - 추가 공간 확보 또는 일부 소규모 강의실의 전용화 추진을 통해 대학원생 전용 강의실을 확장
 - 고양캠퍼스의 전용시설(강의실·세미나실·전산실 등)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
- 장기(4년 이상)
 -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 및 연구 협업 환경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학원 전용 공간(강의실·전산실·세미나실·연구실 등) 신설 또는 리노베이션을 검토
 - 교내외 예산 및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시설 확충을 추진

□ 종합 모니터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장학금, 복지시설, 자치조직, 강의실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학원생 대상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설계하고 개선해야 함.



JOONGB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6. 연구 및 대외협력

- 6.1 자체평가 결과
- 6.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 6.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 6.4 대학원생 연구실적
- 6.5 외국인 학생 비율
- 6.6 제언



6 연구 및 대외협력

6.1 자체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B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D
대학원생 연구실적	C
외국인 학생 비율	A

6.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표 6-1>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당해연도(4월 1일 기준) 본교 전임교원 수와 전년도 교내·교외 연구실적 규모를 바탕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을 산출한 결과이다.

(※일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학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6-1>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단위:편)

공시(기준) 연도	구분	전임교원 수	국내	국제	연구재단	SCI급 /SCOPUS
2023 (2022)	본교	272명	0.686	0.163	0.677	0.163
	전국	73,827명	0.505	0.454	0.471	0.443
2024 (2023)	본교	253명	0.695	0.140	0.685	0.132
	전국	73,217명	0.496	0.440	0.464	0.429

□ 2023년 공시 연구실적

- 국내 연구실적(0.686)은 전국 평균(0.505)을 상회하고, 국제 연구실적(0.163)은 전국 평균(0.454)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국내 연구재단 실적(0.677)은 전국 평균(0.471)보다 높고, 국제 SCI급/SCOPUS 실적(0.163)은 전국 평균(0.443)을 하회함.

□ 2024년 공시 연구실적

- 국내 연구실적(0.695)은 전국 평균(0.496)을 상회하고, 국제 연구실적(0.140)은 전국 평균(0.440)보다 낮게 나타남.

- 국내 연구재단 실적(0.685)은 전국 평균(0.464)보다 높고, 국제 SCI급/SCOPUS 실적(0.132)은 전국 평균(0.429)을 하회함.

□ 추가분석 : 일반대학원 강의담당 전임교원(69명) 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일반대학원 강의담당 전임교원 69명을 별도로 추출하여 2023년 국내·국제 논문 실적(연구재단, SCI급/SCOPUS)을 집계한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일반대학원 강의담당 전임교원 연구실적(2023.12.31. 기준)

연도	교원 수(명)	전체 연구실적(편)		1인당 연구실적(편)	
		연구재단	SCI급/SCOPUS	연구재단	SCI급/SCOPUS
2023	69	121	41	1.754	0.594

- 2024년에 공시된 202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구재단(전국 평균 0.464) 및 국제 SCI급/SCOPUS(전국 평균 0.429)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이는 일반대학원 교육에 직접 참여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치이므로, 일반대학원 특화 연구역량이 더욱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전체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공시자료(대학알리미)와는 시점과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 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강의담당 교원 69명 중에는 1학기만 강의한 교원 또는 2학기에 새로 강의 배정된 교원도 포함될 수 있어, 연간 전체 전임교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자체평가(A/B/C/D)는 공시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 추가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전국 평균 대비 4개 부문(국내·국제·연구재단·SCI급/SCOPUS)을 각각 비교
- 평가기준 : <표 6-3> 참조

<표 6-3> 연구실적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4개 영역 모두 전국 평균 이상	2~3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	1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	4개 영역 모두 전국 평균 이하

- 평가결과 : B등급(우수)
 - 2023년과 2024년 모두 국내·연구재단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국제·SCI급/SCOPUS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여, ‘2~3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에 해당됨.

□ 결론

- 공시자료(전체 전임교원 기준)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국내·연구재단 부문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국제·SCI급/SCOPUS 부문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분석(일반대학원 강의담당 교원 69명) 결과, 국내·국제 연구실적(연구재단·SCI급/SCOPUS)이 공시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일반대학원 특화 연구역량이 실제로는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함.
- 일반대학원 강의담당 교원 대상 통계와 전체 전임교원 기준 공시자료 비교는 가능하나, 자체평가는 대학알리미 공시지표를 준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분석 결과는 내부 참고 및 일반대학원 특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SCI급/SCOPUS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학술지 투고 지원, 국제공동연구 추진, 해외학회 참가비 지원 확대 등 글로벌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매년 일반대학원 강의·지도 교원을 별도로 추출하여 전임교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일반대학원의 실질 연구역량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시자료와 별도 집계자료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유사 시점에 데이터를 확보·관리하여 향후 정확한 비교 및 장기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표 6-3>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당해연도(4월 1일 기준) 본교 전임교원 수와 전년도 교내·교외 연구비 총액을 바탕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을 정리한 자료이다.

(※일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학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6-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단위:원)

공시 (기준) 연도	전국 평균 1인당 연구비		본교 전임교원 수	본교 연구비(총액)		본교 1인당 연구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교내	교외
2023 (2022)	5,886,914원	110,792,550원	272명	297,200,000원	6,176,619,000원	1,092,647원	22,708,158원
2024 (2023)	6,107,596원	115,958,265원	253명	267,300,000원	3,642,924,000원	1,056,522원	14,398,909원

□ 교내·교외 연구비 실적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2023년 1,092,647원에서 2024년 1,056,522원으로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23년은 약 5.9백만 원 vs. 1.09백만 원, 2024년은 약 6.1백만 원 vs. 1.06백만 원으로, 두 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2023년 33,708,158원에서 2024년 14,398,909원으로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은 2023년 약 110.79백만 원, 2024년 115.96백만 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침.
- 특히 2024년에 큰 폭으로 감소.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전국 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감 추이를 모두 고려(교내·교외 연구비 각각 확인)
- 평가기준 : <표 6-4> 참조

<표 6-4> 연구비 수혜실적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 & 전년 대비 증가	일부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 &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전국 평균 이하 & 전년 대비 증가	전국 평균 이하 &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 평가결과 : D등급(미흡)
 - 교내·교외 연구비는 2023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전국 평균 이하 &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항목에 해당됨.

□ 결론

- 2023년 대비 2024년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교내·교외)가 모두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 수준 역시 밀돌고 있어 연구비 확보 전략과 교원별 연구과제 수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연구비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D등급(미흡)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내 지원책(소규모 연구비 매칭, 학술행사 적극 유치 등) 강화, 교외 연구과제(정부·지자체·산업체)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전임교원의 연구 의욕 고취(연구실 공간·장비 확충, 우수 연구 장려금 등)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을 별도로 구분·집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지표는 학교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계산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그러므로 향후에는 일반대학원 강의·지도 등 실질 참여 교원만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보완과 연구 지원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임.

6.4 대학원생 연구실적

<표 6-5>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학원생(석·박사)의 연구실적 현황으로, 재학생 수는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논문발표실적은 해당 연도 학위논문 발표 결과를 기반으로 집계하였다.

<표 6-5> 일반대학원생 연구실적 현황

(단위:편)

연도	재학생 수	석사	박사	계	재학생 1인당 논문 건수
2023	545명	5	76	81	0.149
2024	783명	6	59	65	0.083

□ 연도별 비교

- 2023년(545명) 대비 2024년(783명)은 재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약 44%), 논문 편수는 81편에서 65편으로 줄어 재학생 1인당 논문 건수가 0.149편에서 0.083편으로 낮아짐.
- 특히 박사과정 논문 수가 76편에서 59편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집중학기 재학생의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점이 정규 과정과 달라 현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보고 누락, 재학생 급증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학과 내규와 집계 미비

- 일부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전 일정 수준의 연구실적(학술지 게재 등)을 요구하지만, 대학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았을 수 있음.
- 학위논문 제출 직전에만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학과도 있어, 재학 중 이미 발표한 실적이 공식 집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 대신 학점만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실적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연구활동 여부

- 과거(2021~2022년) 연구실적 통계에서 ‘0건’으로 집계된 것은 학위논문 제외 등으로 인한 통계상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연구활동이 전무함을 의미하지 않음.
- 2023~2024년에는 학위논문발표 결과를 포함해 일부 실적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보고 누락이나 시점 차이에 따른 집계 결과가 완전치 못한 상황임.
- 재학생 수 증가와 더불어 논문(학위논문 포함)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한눈에 파악·보고·등록하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한다면 향후 연구실적 수치가 한층 정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석·박사 연구실적 유무 & 전년 대비 증감
- 평가기준 : <표 6-6> 참조

<표 6-6> 대학원생 연구실적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석·박사 연구실적 모두 있음 & 전년 대비 증가	석사 또는 박사 연구실적 있음 & 전년 대비 증가	석사 또는 박사 연구실적 있음 &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석·박사 연구실적 모두 없음

- 평가결과 : C등급(보통)
 -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석사논문이 5편에서 6편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박사논문은 76편에서 59편으로 크게 감소함.
 - 석·박사 연구실적 자체는 존재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체평가 기준의 ‘전년 대비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단, 일부 논문이 추후 추가 보고될 경우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 결론

- 2023~2024년 집계 결과, 과거(2021~2022년)처럼 모두 ‘0건’은 아니지만(2021~2022년의 경우 학위논문 발표실적이 제외되어 직접 비교가 어려움), 박사논문 발표가 감소하고 1인당 논문 건수 역시 낮아져 전년 대비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인으로는 집중학기 재학생의 학위논문 제출 시점 차이, 보고 체계 미비, 학점 이수 졸업(석사) 등의 복합적 요소가 지목됨.
- 실제 대학원생들이 학술대회 발표나 학위논문 준비를 활발히 하더라도, 공식 보고·등록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집계상 실적이 낮게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연구실적 보고 프로세스 구축(학술대회 발표·논문 게재 시기별 등록), 내규 재정비(졸업인증조건 강화), 금전적 지원(학술대회 참가비·논문게재료, 포인트장학금 등)을 병행한다면, 대학원생(특히 박사)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정확한 실적 집계와 체계적인 지원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외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됨.

6.5 외국인 학생 비율

<표 6-7>은 전국 통계와 본교(일반·휴먼텍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별 외국인 학생 수 및 어학 능력 충족률(TOPIK 4급 이상, TOEFL 530 이상 포함)을 비교한 자료이다.

<표 6-7> 대학원 외국인 학생 현황

(단위:명)

연도	전국		본교 대학원	학위과정		어학 능력	
	석사	박사		석사	박사	TOPIK 4급 이상 (영어트랙 TOEFL 530 이상 등)	어학능력 충족률(%)
2023	30,012 (평균:137.67)	18,141 (평균:101.92)	일반	122	241	126	34.71
			휴먼텍	130	-	81	62.31
2024	33,860 (평균:151.84)	18,294 (평균:102.20)	일반	270	362	286	45.25
			휴먼텍	248	-	167	67.34

□ 학생 수 증가 추세

- 2023년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 수가 363명에서 2024년에는 632명으로 크게 늘었음.
-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석·박사 인원은 전년 대비 269명(약 74%)이 증가하여 단기간에 크게 늘어났음.

□ 어학능력 충족률 상승

-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어학능력 충족률은 2023년 34.7%에서 2024년 45.3%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영어 능력과 학업적응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일반대학원의 어학능력 충족률은 휴먼텍대학원(2023년 62.31%, 2024년 67.34%)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는 집중(유연)학기에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 전국 추세와 비교

- 박사과정은 2023년 전국 평균 101.92명, 2024년 102.20명인데, 본교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은 2023년 241명, 2024년 362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세 역시 전국보다 가파른 편임.
- 석사과정의 전국 평균은 모든 유형(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통합한 값이므로, 본교 또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휴먼텍대학원 석사과정을 합산해 비교한 결과, 2023년 252명, 2024년 518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함.

□ 자체평가

- 평가방법 : 전국 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감 추이(어학능력 충족률 포함)를 함께 고려

- 평가기준 : <표 6-8> 참조
- <표 6-8> 외국인 학생 평가기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기준	전국 평균 수준 이상 & 전년 대비 증가	전국 평균 수준 이상 or 전년 대비 증가	전국 평균 수준 이하 or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전국 평균 수준 이하 &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음

- 평가결과 : A등급(매우 우수)
 - 2023과 2024년 모두 외국인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박사·석사(휴먼텍 합산) 각각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어학능력 충족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전국 평균 수준 이상 & 전년 대비 증가’ 요건을 만족함.

□ 결론

- 2023~2024년 외국인 석·박사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학능력 충족률도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음.
- 특히, 박사과정은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재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사과정도 휴먼텍대학원과 합산 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임
- 앞으로도 체계적인 언어·생활 지원, 학술 프로그램(예: 한국어 튜터링, 글로벌 라운지 운영 등)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6.6 제언

□ 연구 지표 관리 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

- 지표 산출 시점 및 방식 표준화
 - 연구실적 비교 시, 전임교원 산정 시점과 논문실적 구분(국내·국제, 연구재단·SCI급/SCOPUS)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 연도 실적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향후 일관된 산출 지침을 마련하고, 동일한 집계 기준(교원 수, 실적 구분, 평가 기간 등)을 적용하여 연도별 추이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강화
 - 연구성과가 한 해 우수한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도록 개선된 지표 관리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내 우수연구지원사업(인센티브, 연구환경 개선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운영함으로써 연구지원체계(예산, 인프라 등)를 보완·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증진 전략 수립

- 교내·교외 연구비 동시 확대

- 현재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임. 따라서 교내 예산 확보 전략(소규모 연구비 매칭, 학술행사 적극 유치 등)과 교외 과제 수주 지원(정부·지자체·산업체) 방안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
- 교원 맞춤형 연구비 지원
 - 학문 분야별·교수 경력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신진교원 스타트업 연구비, 산학협력 트랙, 국제 공동연구 트랙 등)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구 기회 확보를 유도함.
- 연구행정 지원 및 성과 관리
 - 교원이 연구비를 수주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과제 관리 노하우(보고서 작성·정산 등)를 컨설팅해 주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연구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대학원생 연구실적 관리 프로세스 구축

- 논문(학위논문 포함)·학술대회 발표 실적 보고 체계화
 - 2023에 비해 2024년 박사논문 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집계 시점 차이, 보고 누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 학위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수시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혹은 추가 자료가 발생하면 즉시 반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석·박사 졸업요건 및 장학제도 재정비
 - 석사과정의 ‘학점 이수’ 제도나 박사과정 내 일부 학과의 자체 규정으로 인해 연구실적이 공식 통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각 학과별 졸업요건을 대학원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연구논문 게재에 대한 장학금·포상금 등을 강화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학술 네트워크 구축
 -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교내외 세미나, 워크숍, 학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수·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논문의 질과 양 모두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학생 비율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외국인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 외국인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한국어·영어), 기숙사·생활편의 지원,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어학능력 충족률 관리
 - 휴먼텍대학원에 비해 어학능력 충족률이 낮은 편임. 학기 중 한국어 특별과정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학업·연구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

- 해외 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외국인 학생 증가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 해외자매대학 공동연구, 교환학생제도,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대학원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외국인 박사 인력을 국내 연구진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함.

□ 일반대학원 현황 집계 영역과 방법의 개선

-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구분 관리
 - 현재 모든 지표가 학교 전체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일반대학원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일반대학원 강의·지도 참여 교원을 별도로 구분·관리(연구실적, 연구비 수혜 현황 등)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대학원 특화 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학생 실적 분리
 - 대학원생 연구실적 또한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휴먼텍 등) 분리 집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자체평가 영역 개선
 - 대학원 전임교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자체평가에서는 대학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소만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함